

19일 Market Index			
↓ 코스피	5763.22	↓ 코스닥	1143.48
	(-161.81)		(-20.90)
↑ 금리 (연고채 3년)	3.329	↑ 환율 (원/달러)	1501.30
	(+0.068)		(+18.20)

metro® 경제

리사 수 만난 노태문
삼성-AMD
디바이스 확장 '신호탄'
04



BTS(방탄소년단)의 광화문광장 컴백 공연을 이틀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홍보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랏빛’ 광화문... 경제효과 2650억

BTS 완전체 컴백 D-1

군복무 이후 4년만의 무대 유통업계 ‘BTS 특수’ 기대 인파 26만명 공연 몰릴 듯

4년여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한국 경제가 ‘BTS노믹스’로 들쭉날쭉하고 있다. 항공과 호텔 등의 관광 수입부터 식품·뷰티·유통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경제효과는 2650억 원에 달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유통업계는 일찌감치 마케팅을 시작하고, 상품 재고를 확보하는 등 ‘BTS 특수’를 누릴 준비에 나섰다. <관련기사 L1·L2면>

19일 유통 및 공연 업계 등에 따르면 BTS는 20일 새 앨범 ‘아리랑’을 발매하고, 21일 서울 광화문 라이브쇼를 통해 공식 컴백 무대를 가진다. 이를 기점으로

는 4월부터는 5개 대륙 34개 도시를 도는 월드투어를 시작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2022년 6월 이후 약 3년 9개월만에 BTS 완전체를 볼 수 있는 무대여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멤버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 첫 공식 활동인 만큼 약 26만명의 인파가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들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각) 광화문 공연 당일, 항공, 숙박, 음식, 유통, 굿즈 등이 만드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1억7700만달러(약 265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미국 내 회당 평균 효과(약 700억 원)를 3배 이상 상회하는 규모다.

유통업계 BTS 특수는 이미 시작됐다. 공연장인 광화문광장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한 포시즌스, 더 플라자, 웨스틴 조선 서

울, 롯데호텔 서울 등 주요 5성급 호텔들은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됐다. 광화문 일대 비즈니스 호텔의 평균 객실가도 평소 대비 2~4배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

백화점과 면세점은 모두 BTS와 아이미를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3~15일 명동점 K팝 특화 매장인 ‘K-웨이브 존’의 BTS 굿즈 매출이 전주 대비 190%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렸던 지난 14일에는 매출이 일주일 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20일부터 공식 팝업스토어를 운영, 새 앨범 아리랑 전시는 물론 공식 응원봉 판매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명동 본점과 에비뉴엘 외벽을 아이미의 상징색인 보랏색 조명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편의점 업계도 발빠르게 나섰다. CU·GS25·세븐일레븐 등 편

의점들은 광화문 인근 점포의 생수, 도시락, 핫팩 등 상품 재고를 확보하고, 인력 배치도 대폭 늘리는 등 아이미 맛을 준비에 나섰다. AI 통역 키오스크나 외국어 전담 인력도 배치했다.

명동과 광화문 일대 뷰티매장들 역시 공연 기간 ‘관광 상품 전용 제품군’을 강화하고, 한정판 제품 출시하는 등 외국인 고객 잡기 마케팅이 돌입한 상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BTS 공연 기간동안 외국인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순 쇼핑이 아닌 K-컬처에 대한 경험적 가치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BTS노믹스 효과가 유통 전반으로 번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metro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엿보기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4일(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의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자산 설계가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엿볼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 ◆ 일 시 : 3월 24일(화)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 ~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美, 기준금리 동결... 추가인하 ‘신중’

연준, 연 3.50~3.75% 유지
파월 의장 “중동 공급 차질에
단기 기대인플레이션 밀어올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금리 경로도 유지했다. 하지만 시장은 이번 회의를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받아들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사진)은 중동발 유가 충격과 인플레이션 기대를 거듭 경계하면서 추가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했다. 스티븐 마이어 이사만 0.25%포인트(p) 인하 소수의 견을 냈다.

정책결정문에는 노동시장 관련 문구가 “실업률은 안정화되는 신호를 보였다”에서 “최근 몇 달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로 변했다. “중동 상황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다.

함께 공개된 경제전망요약(S

EP)에서는 성장과 물가 전망이 모두 상향됐다.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2.3%에서 2.4%로 높아졌다.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과 근원 PCE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4%와 2.5%에서 나란히 2.7%로 올라갔다. 다만 올해 말 정책금리 중간값은 3.4%로 유지돼, 연준은 올해 1회 25bp(1bp=0.01%포인트) 인하 경로 자체는 바꾸지 않았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소비와 투자를 바탕으로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서는 재화 부문 인플레이션이 관세 영향으로 높아졌고, 중동 공급 차질에 따른 유가 상승이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렸다”고 진단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



metro

에너지 시설 타격 ‘전쟁 확산’... 세계경제 요동

이란, 카타르 가스시설 공격
세계 LNG 20% 담당하는
قطر ‘확전 재제’ 메시지
브렌트유 107달러, 3.8% ↑

19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의 거대 가스전 가운데 하나인 사우스 파르스 시설

을 공격하자, 이란이 전세계 액화 천연가스(LNG) 공급의 20% 가량을 담당하는 카타르의 가스시설 밀집지역 라스라판산업단지에 미사일로 공격을 하는 등 ‘선을 넘는 전쟁’ 양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에너지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격에 대해 본인은 몰랐으며 ‘확전 자

제’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발표해 양국 간의 전쟁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세계 경제는 이날 요동쳤다.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 5월 인도분 선물 증가의 경우 18일(현지시간) 기준, 배럴당 107.38달러로 전장 대비 3.8% 올랐다. 브렌트유는 증가 산출 이후 상승폭을 더 키워 한국시간 19일 오후 2시20분 현재 배럴당 112.07

달러까지 치솟았다. 브렌트유가 가장 배럴당 110달러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9일 이후 9일 만이다.

4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97.13달러를 나타냈다. 전장 증가(배럴당 96.32달러)보다 추가로 소폭 올랐다.

/윤휘중 기자 yhj@metro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전한길 “보수우파 분열 가져올 뿐...국힘에 남아서 싸우기로 결단”
▲국힘 “공소청·중수청, 李 정권의 사냥개 역할 할 것”...규탄대회 /사진 뉴시스

▲민주당 등 6개 정당 만난 우원식 “국힘도 개헌 논의 동참해 주길”
▲“커퍼 더 달라, 부식 부실하다”...尹, 교도관 면담서 불만 쏟아내

▲나경원 “정치 사라지고 ‘떼법’만 남았다”...민주당 입법 폭주 비판
▲국힘 부산 의원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 말고 특검 심판대 서야”